

대구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2013.8.15.(다해) 제1849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프라 안젤리코 - 성모님의 대관(피렌체 우피지 미술관)



성모님의 기준

박석재 가톨릭 신부 | 교구 사무처장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천상탄일을 경축하는 날이다. 성모님의 영광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니 성모님에게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훈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하겠다. 성모님이 보여 주신 것은 '기본'이다.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주님의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다. '기본'은 집의 기초나 골격과 같아 없거나 부실하면 전체가 허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느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싶지만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알아야 용기라도 낼게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성모님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하느님의 뜻을 아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카티 그것을 말해준다. 하느님은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는" 분,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시는" 분,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는" 분,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성모님이 아셨던 기준이며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찾을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올해 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사임을 발표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셨는데, 이

어서 선출된 새 교황님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계시다.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의 선택에서부터 첫 방문지를 비롯한 그분의 행보, 여러 기회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들이 하나같이 예사롭지가 않다. 새 교황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이 가난과 섬김이다. 그리고 헛된 우상숭배를 경고하신다. 최근 브라질 세계청년대회에서도 교황께서는 '돈'과 '권력', '세속적 성공'과 같은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믿음 안에서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가르치셨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특권을 누리고 즐기신 분이 아니듯 새 교황님도 성모님의 모범을 철저히 따르시는 분으로 보인다. 교황님의 모든 것이 마니피카티의 정신에서 우리나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또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에 거꾸로 가는 길을 한사코 고집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성모님의 기본과 기준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요, 성모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성모님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성모님을 닮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이 시대의 예언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

▲ 입당송

마리아님,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으니,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제1독서 [1역대 15,3-4.15-16; 16,1-2]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화답송

-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제2독서 [1코린 15,54ㄴ-57]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1,27-28]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영성체송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ㄴ.10ㄱㄴㄷ]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답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성모님의 5대 축일

성모님과 관련된 여러 축일은 성모님을 구원의 협력자로 선택하시어 큰일을 이루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성모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구원 업적과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의 모친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애정으로 공경”(전례헌장 103)하며, 이 공경은 성모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하는 것이 됩니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님을 어머니로 택하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성모님을 기념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또 참으로 사람이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탄 8부 마지막 날인 1월 1일에 이 축일을 지내게 되었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이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2.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주님 봉헌 축일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지 40일 째 되는 날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루카 2,22-38)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 날에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이 날을 ‘봉헌생활의 날’로 정하시고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도록 하셨습니다.



3.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성모영보 축일: 3월 25일)

구원의 협력자로 성모님을 선택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

하느님께서서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은총을 가득히 내리셨으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로부터 9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이날,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어 세상에 내리신 것을 기념합니다. 전에는 ‘성모영보 축일’ 또는 ‘수태고지 축일’로 불렸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님 탄생 예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4.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올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모 승천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불러올리심으로써 구원된 새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스스로의 권능으로 승천(Ascensio)하신 예수님과 달리 성모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불러올림을 받으신(Assumptio) 것을 구별하기 위해, 예전에는 몽소(蒙召)승천 침례라고 불렀습니다. 의무 대축일인 이날은 1950년 11월 1일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 성모님의 승천이 믿을 교리로 선포된 이후 성모님의 축일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5.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구세주의 어머니를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

하느님께서 성모님이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은혜를 미리 입도록 하시어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성모님 탄생 축일(9월 8일)에서 9개월 전이 되는 이날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기념합니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무염시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는데, 1858년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원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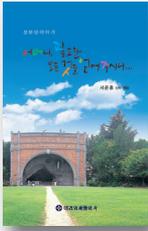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요셉 성인과 함께 한국 교회의 공동수호자이시며, 우리 교구의 첫 번째 주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대구대교구의 주보 축일이 됩니다.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 및 기념일

- 1월 1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2월 2일 : 주님 봉헌 축일
- 2월 11일 :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3월 25일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5월 13일 :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5월 31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 예수성심대축일 다음 날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 7월 16일 : 카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8월 5일 : 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일

- 8월 15일 : 성모 승천 대축일
- 8월 22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 9월 8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 9월 15일 :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 10월 7일 :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11월 21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 12월 8일 :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12월 12일 :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서준홍 신부님의 성모당 이야기

어려니,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 주시니...

대구대교구 성모당 담당사제이신 서준홍(마티아) 신부님께서 대구주보에 연재하셨던 <성모당 이야기>가 마침내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역사이기도 한 성모당 이야기를 통해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모으면서 성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역사적 사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였습니다...」

- 역은이 : 서준홍 신부 | 230쪽
- 발행 : 2013년 8월 15일 | 판매가 : 10,000원
- 구입문의 : 교구 성모당 담당 053)250-3055 | 대건인쇄출판사 053)252-6737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매월 참여해주시는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영성사진 콘테스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사진 콘테스트 참여 방법

-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품 (<http://contest.daegujobo.or.kr>)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옥탑교리방'

가톨릭 청소년 교리서(YOUCAT)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설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 회당 30분 분량을 연간 20회 송출합니다.

팟캐스트 청취방법(스마트폰, PC)

- 아이폰 팟캐스트 앱의 스토어 메뉴, 안드로이드폰 팟드roid 앱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 아이튠즈 실행 후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또는 교구 홈페이지 메인 '옥탑교리방' 배너 클릭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대구주보에서는 신앙의 해에 모든 교우들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라 하신 교황님의 당부에 따라 교리퀴즈를 마련하였습니다. 교리퀴즈 코너를 오려서 답을 적으시고 교구청 문화홍보실로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룩어 질때까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노동자를 위한 미사

8월 16일(금) 19:30

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소강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8.17(토) 14:00

장소: 서울 가양동 수도원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사업

사도직에 관심 있는 청년

문의: (010)3800-1579

성소식별 피정

기간: 8.24(토)~25(일)

장소: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본원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2만 원)

문의: (010)8920-9423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수도원 피정

일시: 매주 금 19:00부터 2박 3일

장소: 경기 안산 상록구 일동 533번지
도미니쿠수도회(10만 원)

문의: (010)9916-5798

<http://www.mindcamp.kr>

평창 성필립보생태마을 가정 피정

기간: 10.18(금) 21:00~20(일) 13:00

10.25(금), 11.1(금), 11.22(금)

주제: 행복한 가정 대화(2박 3일)

비용: 1인당 6만 5천 원(2박 5식)

문의: (033)333-8066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8.22(목) 9:45~25(일) 17:00

동반: 김수조(아가다) 수녀

장소: 툇정포교성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14만 원, 문의: 313-3425

교육 | 모집

609차 성령세미나(2박 3일)

기간: 9.27(금) 13:30~29(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

신청비: 12만 원 / 교재비: 4천 원

문의: (054)954-0951 / (010)4419-1220

쉽게 읽는 거룩한 독서 성경 모임

접수: 7.15(월)~8.28(수)

낮반: 월~목, 저녁반: 월~화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 대상: 전신자

내용: 마르코 복음 · 요한 복음

문의: 815-1114 / (010)4910-4627

재속프란치스코 청년회 모임

프란치스코 성인을 사랑하는 청년

32세 이하 미혼남녀를 초대합니다

문의: 재속프란치스코 영남지구형제회,

수시 (010)3512-0914

2014 대구가톨릭대 수시 신입생 모집

큰인물(大家)을 키우는 큰집(大家),

대가대 2014년, 개교 100주년 전통의

대가대 수시 2,075명 모집(78개 학과)

접수: 9.4(수)~10(화)

문의: 850-2580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2학기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 과정

개강: 9.5(목)

과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문의: 1577-0361 www.cec.or.kr

월배 프란치스코 수강생 모집

진동길 신부의

문인화와 함께하는 영성 생활

첫모임: 8.27(화) 4개월 과정

매주(화) 11:30, 20:30

문의: (070)4266-0047

히말라야-안나푸르나 트래킹

기간: 9.26(목)~29(일), 3박 4일

10.7(월)~18(금), 10박 11일

문의: 한국가톨릭문화원(인천교구),

(010)4711-8188

여대생의 뜰(기숙사)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종교부관)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최후수술 5,000세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우리 아이 껌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방한의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성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사랑하는 자녀에게 밝은 세상을
아이리식은
사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